

韓國 古代神仙說話의 研究

－ 「三國遺事」 所載說話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tales of Korean Ancient Taoist(神仙)

저자 (Authors)	金鉉龍 Kim Hyeun-Lyong
출처 (Source)	통일인문학 12 , 1980.02, 61-80 (20 page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12 , 1980.02, 61-80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The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in Konkuk Univ.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57122
APA Style	金鉉龍 (1980). 韓國 古代神仙說話의 研究. 통일인문학, 12, 61-8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6:1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 古代神仙說話의 研究

—「三國遺事」所載說話를 中心으로—

金 鉉 龍*

차 례

- | | |
|--------------------|--------------|
| I. 緒 言 | 1. 佛敎와의 相衡關係 |
| II. 國祖意識으로서의 神仙思想 | 2. 佛敎와의 相合關係 |
| III. 國仙敎에 나타난 神仙思想 | V. 本格的인 神仙說話 |
| IV. 佛敎와의 關係 | VI. 結 語 |

I. 緒 言

우리의 文學作品에 나타나 있는 思想 가운데 神仙思想이 차지하는 比重은 실로 크다. 그러나, 儒學이나 佛敎에 관하여는 많은 關心을 보여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졌지만, 神仙思想에 대한 考察은 아직도 그렇게 대단한 편이 못되고 있다. 일찌기 李能和氏의 「朝鮮道敎史」¹⁾ 이후 文學背景으로서의 단편적인 研究가 있어 왔을 뿐²⁾, 이렇다할 깊은 考察이 행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筆者는 韓國의 文學作品에 나타나 있는 神仙思想을 根本的으로 究明해 보려고, 먼저 그 本質을 밝히는 意味에서 「신선과 국문학」³⁾을 著述한 바 있는데, 이제 우리 文學作品 속에 表現된 神仙思想의 正體를 研究하는 첫작업으로 우선 「三國遺事」所載 說話부터 本稿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神仙思想은 본래 中國의 民間信仰으로 출발한 것이지만, 識者들이 부단히 理論的인 근거를 붙여 發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學問的인 面으로까지 關心을 가지게 되었고, 또 宗敎적으로 體系化되어 中國學術思想에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⁴⁾ 古代 中國에서는 自身들의 正統思想인 儒學이 도덕적이고 정치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精神面인 宗敎的 思想性的 어떤 것

*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助敎授, 文學博士

1) 李能和: 「朝鮮道敎史」(李鍾股 譯, 서울 普成文化社 刊, 1977)

2) 朴晟義: 「國文學背景論」(서울 宣明文化社 刊, 1967) 第四章 (四)項 參照.

3) 拙著: 「신선과 국문학」(서울 平民社 刊, 1978)

4) 高明: 「中國學術的體系」(臺灣 「中華學苑」 第12期, 1973) 參照.

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外來宗教인 佛敎가 들어 오게 되니, 이를 받아 들여 믿으면서도 民間에 迷信의으로 막연하게 流布되었던 神仙思想을 體系化하여, 그와 유사한 宗教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사실, 佛敎가 처음 中國으로 傳來되었을 時期에는 神仙思想은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융화되기를 꺼렸다. 그러나 宗教的인 體系를 분명하게 갖춘 佛敎와 함께 民間으로 流布가 되는 동안, 세월이 갈수록 자꾸만 同化되어 佛敎의 儀式的인 形式을 많이 모방하고, 그와 잘 융화되면서 社會의 確固한 基盤을 얻어 儒學과 함께 中國의 二大學術思想으로 중요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웃 中國에서 이렇게 發達하여 온 神仙思想은 다른 여러 文化要素와 함께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로 不斷히 흘러 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宗教의 形態를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迷信의인 民間信仰으로만 받아 들여져, 주로 傳奇性을 띤 說話나 小說의 素材로 重要視 여기게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中國에서는 西方에서 流入된 外來宗教인 佛敎에 대하여, 自國에서 發展시킨 神仙思想을 東方의 宗教로 體系化하여 兩立시키겠다는 意慾이 精神的으로 크게 作用을 하였고, 또 여기에 歷代 帝王들의 關心을 끌어 政策的인 庇護를 받기도 하여⁵⁾ 宗教로서의 獨自的인 位置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佛敎나 道敎가 모두 中國에서 들어 온 外來思想이었고, 神仙思想이 宗教的인 形式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佛敎의 儀式的인 面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兩敎를 分離하여 受容하지를 못하고, 한 宗教로 統合하여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 結果, 宗教로서는 佛敎에 完全히 同化되어 버렸고, 그 不可思議한 道術要素는 迷信的인 民間信仰으로 흡수되어 그것의 獨自的인 모습을 잃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文學作品에 受容된 神仙思想은 儒學이며 佛敎와의 混融된 상태로 나타나 있고 서로 변질되어 있어서, 이 神仙思想의 올바른 究明이 없이는 참다운 佛敎思想이나 儒學의 研究마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現存하는 資料로는 가장 古代의 것인 「三國遺事」所載 說話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이 神仙思想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나를 고찰하고, 나아가 佛敎와 관련된 實態를 조사해 본 다음에 본격적인 神仙說話의 모습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國祖意識으로서의 神仙思想

「三國遺事」에는 新羅 시조 朴赫居世를 낳은 어머니를 女仙이라고 밝힌 說話가 실려 있다. 이것은 慶州의 仙桃山 神母를 말하는 것으로, 들론 佛敎의 靈驗에 관계하여 收錄한 說話이지만,

5) “이 때 도교가 번창하게 될 또 하나의 요인은 북위(北魏) 태무제(太武帝), 남조(南朝) 양무제(梁武帝)·진무제(陳武帝) 같은 제왕들이 도사들을 신임하여 등용하고……도교가 가장 전성기를 이룬 때가 그 다음 기인 당나라 때이다……”(拙著: 「신선과 국문학」 pp. 31~32)

得仙한 中國의 女仙을 國母로 받들었다는 데에서 커다란 意義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 26 대 眞平王 때에 智惠라는 佛僧이 安興寺에 거주하면서 佛殿을 重修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經費를 마련할 길이 없어 苦心하고 있었다. 이 때, 꿈에 한 女仙이 나타나서 仙桃山의 神母라고 밝히고, 佛殿을 重修할 費用으로 쓸 수 있도록 金 10 근은 주겠으니 자신의 앉은 자리 밑에서 찾아 가라고 말하고, 아울러 금으로 主尊 3 像을 장식하고 벽에는 五十三佛·六類聖衆·諸天神·五岳神君 등을 그려 모셔서 春秋로 法會를 열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智惠는 仙桃山의 聖母神祠로 가서 神母像의 座下에 있는 黃金 160 량을 찾아 그 지시한 대로 安興寺를 重修했다고 한다(이 部分은 次項 佛敎와의 關係에서 再論할 것임).

이 이야기에 이어서 仙桃山의 神母에 關한 內력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擊足云 隨鷺所止爲家 蘇得書放鷺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鷺山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第五十四景明王 好使鷹 嘗登此放鷹 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閔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6)

이상의 記錄을 살펴 보면, 中國 皇帝의 딸인 娑蘇가 得仙하여 女仙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父皇께서 보내온 鷺(鷺)를 指示한 대로 날려서 그 鷺가 머물러 앉은 이 仙桃山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 이후로 邦國을 鎮護하는 神으로 되었으며 開國 이래로 赫居世·閔英과 함께 國祖의 三神으로 받들어졌다는 內容이다. 그리고, 이 神母祠에 祈禱하면 靈異한 徵驗이 나타난다는 것과, 그 실례로 제 54 대 景明王이 여기에 빌어 잃었던 메(鷹)를 찾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이 記述을 詳考할 때, 신라에는 상당히 오랜 예전에 神仙思想이 傳來되었고, 또 그것을 現實의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 朴赫居世나 閔英의 說話에서 전혀 中國皇室의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데도, 민간에서는 이 聖母와 더불어 ‘三祀’를 받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說話가 제 26 대 眞平王(579~631 A. D.) 때의 智惠法師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 神母의 現夢을 받고 佛殿을 重修하는 費用을 얻었다고 할 정도면 분명히 新羅에서 佛敎보다는 앞섰던 信仰으로 믿어 의심이 없다. 비록, 宗教로서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女仙을 받들어 國母로 모셨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神仙思想의 깊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新羅의 佛敎는 제 23대 法興王(514~539) 때에 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여 다음 대인 眞興王(539~575) 때에야 盛旺을 보게 되는데, 이 智惠法師의 이야기와는 그 거리가 1세기도 안되는 거의 同時代에 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新羅의 佛敎는 神仙思想이 깊이 스며 있는 그 위에 受容이

6) 「三國遺事」卷5 感通 第7 ‘仙桃聖母 隨喜佛事’條.

되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時期는 中國으로 보면 神仙思想이 그 理論의인 뒷받침을 얻어서 宗教로 발전이 되어지던 隋·唐의 連結期이다. 그러니까, 中國에서는 道教가 佛敎를 누르고 더 많은 세력을 얻었던 바로 그 時期에 해당된다. 그리고, 說話의 內容에서 神母의 父皇은 편지를 써서 鳶의 발에 묶어 보내면서, 이 鳶의 머무는 곳에 자리잡으라고 指示하고 있는 것을 勘案하면, 그 父皇인 中國의 皇帝도 神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 設定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의 背景的 與件에 좇아 추정해 본다면, 그 '帝室'의 皇帝는 우리 說話가 設定한 時代에서 약 1세기 정도를 올라가서부터 추적해 볼 수가 있겠다. 5·6세기 경 中國에서 가장 神仙을 信奉하여 道士들을 우대했던 皇帝는 北魏의 太武帝(423~452)⁷⁾, 南朝 梁의 武帝(502~549), 陳의 武帝(557~559) 정도인데, 혹시 이들 중의 어떤 帝室과 關聯하여 생긴 이야기인지도 알 수 없다. 中國의 史書에 高句麗 東明王 誕生說話는 後漢書에 登載되어 있고⁸⁾, 심지어 新羅의 前代인 辰韓에 관한 傳說마저 同書에 실려 있는데⁹⁾, 이 仙桃山 聖母 說話는 史書에 言及된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면, 좀 후대인 5·6세기 경의 前述 帝皇들과의 關係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說話에는 앞에서 引用된 原文에서 보다시피 일단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의 표시 부분 參照), '其始到辰韓也……'라고 덧붙여 그가 赫居世와 闕英 二聖을 낳은 母體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특히 注目되는 點은 神母가 우리 나라로 온 時期가 辰韓代라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 帝室의 皇帝는 漢의 武帝(141~87 B.C.)나 秦의 始皇帝(246~210)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잡아야 한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 說話의 神母를 新羅 二聖을 낳은 國母로 推戴하려니까 辰韓代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設定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와 같이 設定할 수 있는 根據도 中國의 史書에서 發見이 된다. 「後漢書」에,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¹⁰⁾

라고 말한 이후, 「三國志」의 魏書¹¹⁾·梁書¹²⁾·北史¹³⁾에 모두 같은 내용의 記述을 襲用하고 있고 우리 나라 「三國遺事」辰韓條¹⁴⁾에도 역시 그대로 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新羅를 古代 中國

7) 北魏의 太武帝는 그 年號마저 '太平眞君'으로 하고 神仙을 信奉했다.

8) "初 北夷索離國王出行 其侍兒於後姪身 王還欲殺之 侍兒曰 前見天上有氣 大如雞子 來降我 因以有身 王囚之 後遂生男……" (「後漢書」卷 85 東夷列傳 夫餘國)

9) 下註 10) 參照.

10) 「後漢書」卷 85 東夷列傳 韓 條 參照.

11) 「三國志」卷 30 魏書 第30 烏丸鮮卑東夷傳 辰韓傳.

12) 「梁書」卷 54 列傳 第48 諸夷 東夷 新羅.

13) 「北史」卷 84 列傳 第82 新羅.

14) 「三國遺事」卷 1.

의 秦나라 후손으로 이어 놓은 셈이다. 물론 이 이야기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辰韓耆老自言’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어느 모로나 中國이 憧憬의 대상으로 되었던 古代社會에서는 이것을 事實로 믿고 싶어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記錄과 결부하여 보면, 神母를 ‘其始到辰韓也’라고 하였고, 二聖을 낳아 新羅의 國母가 되었다고 한 것은 반드시 一聯의 相關性을 가진다고 하겠다. 新羅의 族屬을 秦의 後裔로 생각하게 되면 秦始皇의 딸이 得仙하여 이들과 함께 건너 와서 이들을 지도하며 살았다고 하여도 說話 構成上의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秦人이 건너온 動機가 秦始皇의 暴政에 苦役을 피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中國說話에서 秦亂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得仙한 이야기가 많은 것과도 어떤 聯關性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記述을 살펴 보면, 처음에는 전혀 新羅의 赫居世와 闕英을 낳은 國母로 표현하지 않았다. 中國 帝室의 女가 우리 나라로 와서 地仙이 되어 父皇의 地代로 仙桃山에 居하면서 邦國을 鎮護했다고 하였으며, 神母에게 빌면 많은 영험이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다분히 國母論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냥하던 매를 잃은 景明王(제 54대)이 神母에게 빌어 매를 찾고는 ‘大王’의 爵位를 封했다고 서술하였으니, 國母의 神으로 보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景明王이 聖母를 大王으로 封爵한 이후에, ‘大王聖母’로 불리어지면서 秦人의 辰韓說과 결부되어 ‘聖母’라는 ‘母’字 때문에 赫居世와 闕英을 낳은 母體라고 構成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三國遺事」에서 一然是 이상과 같이 神仙思想의 聖母로 표현하여, 國母要素가 없는 說話로 構成을 해 놓고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는 辰韓 때 건너 왔으며 聖子를 낳았는데 이가 東國始君 赫居世 闕英 二聖이다”라고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說話의 끝에다가 또다시 「三國史記」 金富軾의 史評을 要約하여 실어 놓은 것에서 그 이유를 캐낼 수가 있다. 즉, 金富軾이 政和中(1111~1117)에 使臣을 따라 宋에 갔을 때, 佑神館의 學士 한 사람이 벽에 걸린 女神像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가 貴國의 神인데 옛날 中國 帝室의 女로 辰韓 때 海東으로 건너가서 海東始祖를 낳았고, 地仙이 되어 仙桃山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內容이다. 이제 좀더 자세히 考察해 보기 위하여 「三國史記」의 原文을 引用코자 한다.

政和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軾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 生子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¹⁵⁾

이 기록에서 보면, 中國 宋나라에서 보고 있는 觀點은 우리와 아주 판이한 面이 있다. 곧, 옛날 中國 帝室의 女가 시집 가기 전에 잉태를 하였다. 그래서 소문이 나빠서 바다를 건너 辰

15) 「三國史記」卷 第12 新羅本紀 第12.

韓에 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海東의 始祖가 되었고, 帝女는 地仙이 되어 仙桃山에 居하고 있다는 內容이다. 덧붙여 宋의 使臣 王襄이 東神聖母에 대한 記述을 올릴 때, 그 祭文에 역시 ‘振賢肇邦’이란 句節이 있었다는 말까지 記述하고 있어서, 宋나라에서의 一般화된 이야기 口吻을 暗示하였다.

이것을 「三國遺事」의 記錄과 比較해서 비판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三國遺事」에서는 帝室之女가 일찌기 得仙하여 海東으로 와서 살았다고 美化하고 있으나, 宋나라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帝室의 女가 ‘不夫而孕’하여 남의 의심을 받아서 부끄러워 辰韓으로 逃亡해 온 것으로 貶視하고 있다.

둘째로, 「三國遺事」에서는 神母가 우리 나라로 건너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없고, 다만 地仙이 되어 邦國을 鎮護하고 靈驗을 나타내는 聖母로 표현을 했으며, 이야기의 말미에 덧붙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聖子를 낳아 東國始君이 되었는데 대체로 二聖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三國史記」에 실린 宋나라 사람의 말에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海東의 始祖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배어 낳았다는, 凡常의 女人으로 취급한 面과, 始祖를 白馬와 鷄龍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즉 造物主로 보는 面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세째는, 「三國遺事」에만 더 나타나 있는 部分이 있으니, 곧 神仙要素이다. 中國의 父皇이 편지를 써서 鳶의 발에 매어 보냈고, 그 鳶으로 하여금 安住할 地點을 指定하게 構成하고 있다. 이 神聖要素는 神仙思想에 根據한 것으로서 우리 民族의 精神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 같다. 後代 李朝時代 後半에 나타난 女仙英雄小說 「朴氏傳」의 중요한 모티브로 登場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¹⁶⁾

끝으로, 金富軾의 이 說話에 대한 觀點이 문제가 된다. 우리의 始祖를 貶視하는 이 이야기(宋나라 사람이 말한)에 대하여 그는 ‘然而 不知其子王於何時’라고 記述하여서, 우리는 그런 왕을 모른다고 否定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널리 우리 나라와 宋나라에까지 퍼진 說話이므로 否定될 수가 없고 事實이 歪曲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三國遺事」의 記述態度라고 할 수가 있겠다. 中國 사람들이 貶視한 ‘不夫而孕’ 部分을 得仙으로 바로잡고, 父皇의 指示를 받은 神聖한 女仙으로 設定을 하였으며 ‘生聖子爲東國始君’에 대한 해석을 새로이 붙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상의 論述을 綜合적으로 考察해 보면, 이 說話는 「三國遺事」의 本條 앞 部分에서 記述한 대로, 오래 전부터 新羅에는 聖母像과 함께 中國 帝室의 女가 得仙하여 와서 居한다고 하는 女仙 說話가 있어 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 神祠는 護國의 神으로도 받들어져서 赫居世와 關英의 神祠와 함께 新羅의 三祠로 信奉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찍부터 神仙思想이 新羅의 重要한

16) 「박씨전」의 朴氏夫人은 그 父親 朴處北의 道術에 의하여서, 그 지시로 李時白에게 出嫁하였고, 뒤에 薄色의 얼굴이 絶色美人으로 변하고 있다.

信仰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仙桃山의 이 神母祠는 通常 ‘聖母’로 불리어져 왔으며, 제 54대 景明王 때에 ‘大王’으로 封爵한 후는 ‘大王聖母’로 되면서 차차 國母의 觀念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秦人東渡의 傳說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며, 新羅 二聖 誕生說話의 虛誕性은 그 根據를 어디에 끌어 붙여야 할 必要性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高句麗의 國母에 대한 숭배와 그 國母祠에도 刺戟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中國 史書인 「北史」高麗傳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信佛法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曰高登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並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 朱蒙云¹⁷⁾

이라고 하여 國母 河伯女의 祠堂을 극진히 모시고 있다.

여하간 이렇게 하여 聖母祠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女仙인 聖母가 國母인 聖母로 意識이 변했고, 佛敎가 傳來된 후에도 佛敎와 융화를 이루어 新羅 最高神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高麗朝로 내려 오면서 中國으로 傳해진 이 說話는 우리 나라를 貶視하는 方向으로 改造가 되어, 이른바 「三國史記」의 史評에 登載된 모습으로 中國에서는 傳播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나라에서는 時代를 내려 오면서 계속 이 說話는 國祖聖母의 位置를 유지해 왔다. 후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을 보아도,

聖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來止海東 久而不還 遂爲神 世傳 赫居世乃聖母之所誕也¹⁸⁾

라고 명백하게 表現하고 있다.

Ⅲ. 國仙敎에 나타난 神仙思想

新羅의 花郎制度는 當時 온 국민의 精神의인 支柱로서, 가히 新羅 固有의 宗教로 보아 손색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學問的・思想的인 根幹을 이룬 儒學이나 佛敎, 그리고 神仙思想이 모두 外來의 것으로서 完全히 民族感情이며 社會與件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外來世 思想 중에서 우리에게 必要하고도 適當한 要素만을 뽑아 하나로 뭉친 새로운 信仰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런 面에 대하여 무척 苦心을 하였던 분이 眞興王이라 생각된다. 그는 創始한 源花制度가 폐단으로 인하여 중지된 뒤, 다음과 같이 苦心을 하였다고 「三國遺事」에서 記述하고 있다.

17) 「北史」卷 94 列傳 第82

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1 慶尙道 慶州府 聖母祠 條.

廢原花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¹⁹⁾

新羅 一代를 통하여 眞興王만큼 佛教를 信奉한 임금도 드문데, 이와 같이 興國의 方法으로 새로운 '風月道'를 創始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던 그 心情은 凡常으로 보아 넘길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花郎을 論議할 때에는 흔히 儒·佛·仙의 3思想을 綜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三國史記」에 실린 崔致遠의 鸞郎碑序에,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²⁰⁾

라는 三教包含의 實證을 밝힌 바 있어서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花郎制度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新羅 末期 이야기이고, 그 出發當時에는 좀 달랐다. 「三國遺事」의 關係 記錄을 詳考해 보면 花郎國仙의 始初는 神仙思想에 根據하여 出發한 것이 確實하다. 그 記錄을 引用해 보고자 한다.

第二十四眞興王 姓金氏……慕伯父法興之志 一心奉佛 廣興佛寺 度人爲僧尼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²¹⁾

이 글을 풀이해 보면, 첫째로 眞興王은 伯父인 法興王의 뜻을 받들어서 一心으로 佛教를 信奉했고, 널리 佛教의 寺刹을 일으켰으며, 중이 되는 一種의 證明서인 度牒을 주어서 제도적으로 중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다음에 '又'字를 놓아 강조해 表現하기를 '天性風味 多尙神仙'이라 나타내고, 그래서 人家의 娘子 중 美艷者를 뽑아 原花로 삼고 徒衆이 받들어 함께 修養을 쌓아 국가 다스리는 大要가 되게 하였다고 說破했다. 그러니까 原花의 시작은 순연히 神仙思想을 母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文章을 對句로 나열해 보이려고 한다.

慕伯父法興之志 一心奉佛廣興佛寺 度人爲僧尼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이렇게 된다. 佛教를 信奉한 것은 伯父의 뜻을 사모한 때문이고 多尙神仙한 것은 天性風味한 까닭이었다. 그리고 '度人爲僧尼'와 '捧爲原花'가 對가 되어, 佛教를 대표한 僧尼와 神仙思想의 구체적인 인물 原花가 對立되어 있다. 그러므로, 眞興王이 風月道를 구상하게 된 그 精神的인 밑바탕은 神仙思想이다. 이 記錄은 佛僧인 一然의 論述이라는 點에서 더욱 注目된다.

이 '多尙神仙'이란 句節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다른 見解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李博士의

19) 「三國遺事」卷 41 羅勒仙花 條.

20) 「三國史記」卷第 4 眞興王 條.

21) 「三國遺事」卷 4 羅勒仙花 條.

「三國遺事」譯本²²⁾ 이 句節의 번역에서 頭註로, “新羅固有의 國風인 源花·花郎의 道를 仙에 比하는 데서 나온 筆法”이라고 ‘神仙’을 註하여, 마치 神仙思想의 神仙이 아니라, 花郎에 關聯하여 막연히 끌어 온 뜻없는 單語로 보아, 神仙思想을 애써 排除하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어느 面으로 해석하나 이 語句는 分明한 神仙思想을 뜻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花郎을 ‘國仙’이라고 稱했다는 데에도 神仙思想과 밀접히 相關되어 있다. 眞興王의 構想은 ‘東國 神仙의 道’로서 神仙思想의 現實化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神仙思想을 흔히 長生不死나 道術行脚 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無知에서 온 판단이다. 神仙思想은 靈肉이 一致된 實踐行動을 中心으로 삼는다. 一定한 修練을 거쳐 得仙하게 되는 過程 그 自體가 무엇보다도 重要視된다. 神仙의 修練에서 그 제일차적인 條件이 忍耐이며 氣를 傷하지 않는 修養이요, 禁慾·不貪·孝養 등이다. 그러므로, 國仙教는 이러한 修練을 現實的으로 닦아 國家의 人材를 養成해 보자는 意圖性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라고 믿었고 그 결과를,

自此使人悛惡更善 上敬下順 五常六藝 三師六正 廣行於代²³⁾

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教化는 儒學의 方法으로는 學校를 통하여 스승이 傳授하는 것이요, 佛敎에서는 佛前에 功德을 쌓거나 讀經·坐禪의 方法을 빌어 成就하는 것이다. 그러나, 新羅의 眞興王이 생각한 것은 이러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 하고, 國仙花郎을 봉해 놓고 그를 받들며 徒衆이 雲集하여 遊娛山水하고 歌樂으로 서로 즐기며, 이러한 사이에 實踐을 통하여 修養이 쌓이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神仙의 修練方法을 밑바탕으로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國仙道가 세월이 흐르면서 佛敎와 儒學의 長點을 흡수하여 名實共に 新羅精神의 主軸이 되었고, 崔致遠이 말한 바 三敎包畝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三國遺事」一然의 表現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時代가 흘러 내려오면서도 民間에서는 계속 花郎·仙花·國仙 등으로 불리어진 이들을 佛僧에 대립된 관계로 받아 들였고, 그래서 神仙思想과 結付하여 생각해 왔던 것같이 느껴진다. ‘彌勒仙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眞智王 때 興輪寺 僧 眞慈가 늘 彌勒像 앞에 나아가 빌기를, 大聖께서 花郎의 모습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며, 만일 나타나 주시면 극진하게 만들겠노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熊川 水源寺에 가면 彌勒仙花를 볼 수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이었다. 眞慈는 기뻐 水源寺를 찾아 가니 절의 문밖에 이르자 어떤 소년이 기다리고 있다가는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함께 그 절의 小門으로 들어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 소년에게 자기를 어떻게 알고 맞이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같은 京師 사람으로서 高師의 내왕을 보고 맞이하였을 뿐이라고 하

22) 「原文并譯註三國遺事」(서울 東國文化社 刊, 1962 再版) p. 344 頭註 參照.

23) 「三國遺事」前揭 註 21) 同.

면서 얼마 후 문밖으로 나가 사라져 버렸다.

眞慈는 별로 이상히 여기지를 않고 길 안으로 들어가 여러 寺僧들에게 자기가 온 내력을 말하였다. 이 절의 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虛誕한 소리를 한다면, 혹시 절 남쪽에 있는 千山이 靈驗하니 그리로 한번 가 보라고 일러 주었다. 그길로 眞慈는 그 산 아래에 가니, 山神이 老人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는 水原寺 문밖에서 彌勒仙花를 만났는데 왜 찾아 다니느냐고 책망하는 것이었다. 이에 眞慈는 깜짝 놀라 깨닫고 興輪寺로 돌아 왔다. 그 후, 이 이야기를 眞智王에게 알리고 그 소년을 찾아 보도록 아뢰었다. 그래서 眞智王의 命을 받고 찾아 다니다가 비슷한 소년을 만난 것이 '未尸'라는 孤兒이었고, 眞智王은 그 소년을 國仙으로 봉하게 되었다.²⁴⁾

이 說話는 언뜻 보면 佛敎의 靈驗을 나타낸 이야기로만 보이지만, 그 末尾에 一然 自身이 첨부하고 있는 說明, 즉

至今國人 稱神仙曰彌勒仙花 凡有媒係於人者曰 未尸 皆慈氏之遺風也²⁵⁾

라고 言及한 것을 보면, 花郎과 神仙思想과를 결부시키고 있는 關係를 알 수가 있다. '彌勒仙花'란 말은 위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생긴 花郎의 名稱인데, 一然이 살고 있던 當時인 高麗의 사람들은 神仙을 彌勒仙花라고 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新羅에서부터 高麗에 이르기까지 民間의 意識 속에는 花郎을 神仙思想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었다는 證據가 된다.

그리고, 新羅에서는 佛僧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國師'로 奉했었는데 대하여, 절은 良家子弟 중에서 뛰어난 者를 뽑아 '國仙'으로 奉했었다.

……更下令 良家男子有德行 者 改爲花郎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故豎碑於溟州²⁶⁾

이것은 完全히 佛敎에 대립되는 實踐의인 宗教로 意識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新羅의 花郎國仙이 그 基底에 神仙思想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음은 절대로 否定될 수 없는 事實이라 믿는다.

IV. 佛敎와의 關係

中國에서는 佛敎와 道敎가 엄연히 兩立되어 따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道場을 가지고 信徒들이 모여 정식으로 믿는 宗教는 高麗 以前까지 佛敎밖에는 없었다. 史書의 記錄을 通하여 考察해 보면 간혹 道敎를 政策的으로 받아 들여 講論했던 事實이 여러 發見되고, 또 神母祠·道觀 등을 지어 道敎의 神仙들을 모셨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가 있으나, 이것이 바로 宗教로서 佛敎와 兩立될 수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24) 「三國遺事」卷4 彌勒仙花 이야기를 要略하였음.

25) 「三國遺事」前揭 註21) 同

26) 「三國遺事」前揭 註21) 同

이렇게 이 땅에 道敎가 발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는 佛敎가 너무나 완전한 종교로서 그 儀式이며 思想이 大衆의 意識을 휘어잡아 버렸고, 道敎의 形成上에 있어서 佛敎에 쉽게 同化될 수 있는 弱點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잠깐 論及한 바가 있다.

1. 佛敎와의 相衡關係

「三國遺事」에 道敎를 佛敎의인 立場에서 亡國의 根本으로 몰아붙인 說話가 登載되어 있으니, 莫離支 淵蓋蘇文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高句麗의 끝무렵, 제 27대 榮留王과 그 다음의 28대 寶藏王代에 와서 高句麗에는 國策의으로 道敎를 崇尚하였고, 따라서 民間에서도 道敎를 많이 믿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中國으로부터 道士가 초빙되어 오고 道德經을 講했으며 佛寺를 道觀으로 바꾸는 등의 道敎振興政策이 行해되었던 것이다.²⁷⁾ 이 時期는 中國으로 보면, 唐의 高祖가 새로운 나라인 唐을 肇國하고 그의 보잘 것 없는 先祖를 내세울 수가 없어서 苦心하고 있던 중, 道士의 말을 듣고 道敎를 國祖의 宗教로 삼아 優待하기 시작한 바로 그 時期였다.²⁸⁾ 高句麗가 갑자기 道敎를 崇尚한 것은 唐의 이 道敎政策과 큰 關係가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때 高句麗에 道敎를 崇尚해야 한다고 王에게 적극 주장하여 道敎가 盛하게 되는 데에 功貢한 이가 莫離支 淵蓋蘇文이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優待받던 佛敎는 萎縮되어지고, 大僧師들이 피하여 移住하게 되었으며, 道敎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怨聲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三國遺事」의 여기에 關한 記錄을 引用해 보기로 한다.

及寶藏王即位 亦欲併興三教 時寵相蓋蘇文 說王以儒釋並廢 而黃冠未盛 特使於唐 求道敎 時普德和尚住盤龍寺 憫左道匹正 國祚危矣 屢諫不聽 乃以神力飛方丈南 移于完山州孤大山 而居焉 即永徽元年庚戌六月也 未幾國滅²⁹⁾

이 內容을 보면, 寶藏王이 道敎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 寵相 蓋蘇文이 王을 권하여 道敎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는 것, 普德和尚이 王에게 諫하다 못하여 南으로 飛去하여서 完山州 孤大山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과, 이후 곧 高句麗가 망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蓋蘇文이 道敎를 崇尚해야 한다고 王에게 勸하여서 道敎興盛과 同時에 佛敎가 衰하였기 때문에, 當時 사람들은 蓋蘇文과 道敎를 함께 亡國의 原因으로 보고 있어서 佛敎와의 심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當時 佛敎를 信奉하던 民間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이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蓋蘇文과 道敎를 貶하는 說話가 登載되어 있어서 注目된다. 「高麗古記」의 글을 引用하여 「三國遺事」에 실은 이 關係 記事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7) (寶藏王 2年) 三月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三國史記」卷 21 高句麗本紀 第9)

28) 拙著 「신선과 국문학」 (서울-지문사 刊, 1978) pp. 31~32 參照.

29) 「三國遺事」卷 3 興法 3 寶藏奉老 條.

隋의 煬帝가 大業 8년에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했다. 이 때 隋軍이나 高句麗가 모두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高句麗의 嬰陽王은 隋 煬帝에게 글을 올려 화의를 청했다. 이 때에 煬帝는 무척 기뻐하며 그 글을 받아 읽고 있었다. 그런데, 高句麗의 使者가 煬帝의 머물고 있는 배(艇)로 글을 가지고 갈 때에 한 사람이 몰래 조그마한 활을 숨기고 갔었다. 그래서, 煬帝가 使者의 글을 읽고 있는 동안 활을 쏘아서 그를 명중시켰다. 이에 煬帝가 部下들에게 大國의 皇帝로 小國을 치러 왔다가 이렇게 화를 당하니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슬퍼했다. 이에 右相 羊皿이 옆에 있다가 말하기를, 자신이 죽어 고구려의 大臣이 되어서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帝王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뒤에 그는 과연 高句麗에 태어나서 聰明하고 뛰어난 登用이 되고 姓을 蓋로 고쳤으며 이름을 金이라고 했다. 이어서 蘇文의 벼슬에 올랐으며(여기서는 '蘇文'을 官職名으로 보았음), 王을 권하여 道教를 中國에서 들여 오게 하고 道士를 우대하니, 그 道士들이 國內의 山川形勢를 꺾어서 결국 佛敎의 쇠퇴와 함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³⁰⁾

이 이야기는 高句麗의 嬰陽王이 隋 煬帝에게 글을 올려 화의를 청한 것과, 그로 인해 隋軍이 回軍한 事實만 史書에 올려 있어³¹⁾ 眞實이고 나머지는 說話로 構成한 內容인데, 淵蓋蘇文이 姓을 '蓋'로 한 것에 着眼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蓋'는 俗字로 '蓋'라고 쓰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쓰면 '羊皿'이 되어, 隋의 右相이 羊皿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羊皿'이란 사람을 史書에서 찾을 길이 없으니 아마도 그저 붙인 이름인 것 같다. 여하간 淵蓋蘇文과 道教 때문에 佛敎가 쇠퇴하여 普德和尚의 移住로 高句麗가 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構成임에 틀림없다.

「三國遺事」에는 「唐書」에 登載된, 같은 내용의 說話를 함께 실고 있는데, 거기에는 道教와 佛敎의 이야기는 言及하지 않았다.³²⁾ 이 記錄은 「高麗記」를 보고 要約하여 表現한 것이겠지만,³³⁾ 道教를 더 우대하였던 唐나라에 關係된 內容이기 때문에 意識적으로 削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高句麗 末期는 한창 佛敎가 旺盛하던 社會에 道教가 政策的인 庇護를 받아 갑자기 盛하게 되면서 서로의 사이에 相衝的인 關係가 나타났던 것 같다.

2. 佛敎와의 相合關係

前項에서 살펴 본 淵蓋蘇文 說話가 高句麗에서의 佛·道 相克關係를 나타내고 있지만, 新羅에서는 반대로 佛敎가 神仙思想에 잘 融和되고 있어서 特記할 만하다. 前述 仙桃山 '聖母' 說話의 前半部를 引用해 보기로 한다.

30) 「三國遺事」前揭 註 29)에서 筆者가 要約하여 풀이한 것임.

31) (嬰陽王 25年) 秋七月 車駕次懷遠鎮 時天下已亂 所欲兵多失期不至 吾國亦困弊 來護兒至卑奢城 我兵逆戰 護兒擊克之 將趣平壤 王懼 遣使乞降 因送解斯政 帝大悅 遣使持節 召護兒還 八月 帝自懷遠鎮班師 冬十月 帝還西京……(「三國史記」卷 20 高句麗本紀 第 8)

(煬帝 10年) 秋七月甲子 高麗遣使請降 因送解斯政 上大悅 八月己巳 班師…… 冬十月丁卯 上至東部 己丑 還京師……(「隋書」卷 4 帝紀 第 4 煬帝 下)

32) 又按唐書云 先是隋煬帝征遼東 有裨將羊皿 不利於軍 將死有誓曰 必爲寵臣 波彼國矣 及蓋氏擅朝 以蓋爲氏 乃以羊皿 是之應也(「三國遺事」卷 3 寶藏奉老 普德移庵 條)

33) 「舊唐書」卷 46 經籍志 第 26 經籍 上 乙部史錄 項에 '奉使高麗記一卷'이라 보임.

眞平王朝 有比丘尼 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 而力未也 夢一女仙 風儀婣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予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 及諸天神 五岳神君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 以爲恒規 惠乃驚覺 率徒往神祠座下 掘得黃金一百六十兩 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³⁴⁾

첫째로, 佛殿을 중수할 費用을 女仙인 聖女가 마련해 주었고, 다음은 佛敎의 佛殿 벽에 神仙思想에서 받드는 諸天神과 五岳의 神君 등을 그려 모시고 함께 받드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新羅 佛敎의 方向을 提示하였다든 점에서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결국 新羅는 佛寺가 道敎의 道觀을 접하게 된 契機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것은 한편 우리 나라에 道敎가 獨立하지 못한 이유를 말해 주기도 한다. 완전히 그 宗教儀式的인 面은 佛敎에 統合해 버린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寺刹에 道敎의 神을 모시고 있는 것도 이 說話에 根據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한편, 神仙思想의 說話的인 道術行脚은 자연적으로 佛僧에 結付시켜지지 않을 수 없었다. 道觀에 道敎의 神을 모시고 여기에 道士가 지키면서 信徒를 이끌어 神仙修業을 해야만 神仙思想이 따로 存在할 수가 있는데, 道觀을 佛寺에 融合해 버렸으니 자연 道術說話는 佛僧의 超人性을 나타내어 民間의 羨望의 對象이 되게 하는 것에 利用되고 말았다. 이러한 實例는 「三國遺事」의 몇몇 說話에서 證明이 되고 있다. 한 가지 例만 들어 보고자 한다. 「三國遺事」卷四 '寶壤梨木' 條의 끝 부분에 一然是 다음과 같은 說明을 붙여 놓고 있다.

爾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鵲塔瑠目之事于圓光傳中 系犬城事於毗虛傳 既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使寶壤無傳 而疑誤後人 謬妄幾何

一然是 寶壤師에 관한 記事를 다 記述한 다음, 自身이 寶壤의 行迹으로 表現한 이 세 가지의 異事를 어떤 典籍에서는 만 사람의 行迹으로 나타내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 說明한 內容이다. 新羅 殊異傳에서는 까치가 땅을 쪼고 있어서 거기를 파서 塔의 舊基를 알아낸 鵲塔의 일과, 龍의 아들 瑠目이 自意로 비를 내리게 했다가 天帝使者의 懲戒를 받은 이야기인 瑠目事件은 圓光法師傳에 넣어 圓光의 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犬城에 山賊이 침입했는데 개의 性品을 들어 '晝擊其北'을 지시해서 무찌르게 한 犬城事件도 또 毗虛僧의 이야기로 잘못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潤文되어 '海東高僧傳'에 그대로 틀리게 登載되었으니, 後人을 어리둥절하게 함이 심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 중, 龍과 關聯된 瑠目說話를 좀 더 자세히 考察코자 한다. 「三國遺事」의 寶壤 이야기의 이 부분을 要約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寶壤師가 중국에서 佛法을 닦아 돌아 올 때, 西海를 건너니 龍이 맞이하여 龍宮으로 초대하고 念經을

34) 「三國遺事」卷 5 仙桃聖母隨喜佛事 條.

부탁했다. 여기서 나올 때에 龍은 고맙다고 龍의 아들 瑠目을 같이 보내어 師를 돕게 하였는데, 함께 돌아와 寶壤이 居住하는 雲門禪寺 峽의 小潭에 늘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년을 날이 가물어 곡식이 모두 말라 버렸다. 寶壤은 瑠目を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비가 흠족하게 내렸는데, 天帝로부터 명령도 받지 않고 비를 내렸다 하여 瑠目を 죽이려고 使者를 내려 보냈다. 瑠目이 다급해 寶壤에게 告하고 그의 寢床 밑에 숨어 있었다. 이 때 天使가 와서 瑠目を 내 놓으라 하니 師는 풀 앞의 梨木(뿌이 서로 같음을 연관시킨 것임)을 가리키면서 저 것이라고 했다. 天使는 곧 그 梨木에 벽력을 내려 치고 돌아 갔다. 이후 梨木이 시들어졌는데 龍이 나와서 만져 주니 다시 살아 났다.³⁵⁾

이것의 풀릇은, 現身한 龍이 天帝의 命을 받지 않은 채 비를 내리고, 그래서 天帝의 使者가 그 龍을 잡아 벌주려고 하니 道僧이 그 龍을 숨겨 주어서 免하게 한다는 內容이다. 이 素材는 물론 一然이 說明한 대로 「海東高僧傳」에는 圓光法師의 이야기로서 실려 있다. 그러나, 一然이 말한 寶壤師의 行迹도 끌어다 붙인 것으로서, 사실은 神仙思想의 널리 알려진 說話이다. 이 素材는 李朝時代 小說인 「崔孤雲傳」에도, 崔孤雲이 中國으로 들어 갈 때 龍의 아들을 隨行하여 갔으며, 압록강 中耳島에 비를 내리게 하여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表現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新羅의 두 佛僧에 結付되었었고, 李朝時代에는 新羅의 儒學者(事實은 神仙으로 表現되었음)에 붙여 小說化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素材는 더 올라 가서 中國의 孫思邈에 關한 道術로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佛僧 玄照의 說話 속에 나오는데, 釋玄照는 天帝의 使者를 달랠 능력이 없어서, 玄照가 道士 孫思邈에게 부탁하여 그의 힘을 비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注目된다. 간단히 內容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釋玄照의 說法場에 세 龍이 늘 와서 聽講했다. 하루는 玄照가 세 龍에게 비를 내려 백성의 荒饑를 구제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三隻(龍의 變身)은 비를 내리는 일은 쉬우나 天帝의 명령 없이 내리면 자신들이 벌을 받아 죽게 되니, 이웃 산에 거처하는 道士 孫思邈에게 같이 가서 자신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玄照는 三隻를 데리고 가서 孫思邈에게 애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곧 三隻는 흠족하게 비를 내리고, 孫思邈의 거처하는 뒷편 못에 숨어 있었다. 얼마 후 天帝의 使者가 내려 와서 그곳에서 3마리의 물개로 변화시킨 龍을 잡아서 나왔다. 이 때 孫思邈은 자기가 시켜서 한 것이니 3龍을 놓아 주고 天帝께 가서 자기의 일을 告하라고 일러 주니, 天使들은 돌아가고 무사했다.³⁶⁾

여기에서는 佛僧이 자신의 힘으로 龍을 救할 수 없어서 道士인 孫思邈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 곧 이 素材는 神仙思想에 속하는 道術行脚이고 佛僧에 關한 것이 아님을 暗示하고 있다. 이것이 新羅의 경우, 佛僧 두 사람에게 서로 끌어 結付시켰다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佛敎와 道敎가 融合된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三國遺事」에 실린 ‘二惠’, 곧 惠宿·惠空 說話도 비록 ‘釋’자가 앞에 붙어서 佛僧으로 表現

35) 「三國遺事」 卷 4 寶壤梨木 條의 內容을 要約하였음.

36) 「太平廣記」 卷 420 釋玄照 項에 原文이 있음. 拙著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서울 一志社 刊, 1976)의 四項 III의 2. 西浦小說 中 九雲夢과, 6. 崔孤雲傳에서 比較研究되어 있음.

어 있지만, 完全한 神仙說話를 佛僧으로 끌어 붙였다.

[A] 釋惠宿沈光於好世郎徒 郎既讀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二十餘年 時國仙瞿崑公嘗往其郊……公甚異之 歸奏於朝 眞平王聞之 遣使徵迎 宿示臥褥床而寢 中使隱焉 返行七八里 逢師於途 問其所從來 曰城中檀越家 赴七日齋 席罷而來矣 中使以其語達於上 又遣人檢檀越家 其事亦實 未幾宿忽死 村人舉葬於耳覬東 其村人有 自峴西來者 逢宿於途中 問其何往 曰久居此地 欲遊他方爾 相揖而別 行半許里 躡雲而逝 其人至峴東 見葬者 未散 具說其由 開塚視之 唯芒鞋一隻而已……

[B] 釋惠空天真公之家傭婦之子 小名憂助 公嘗患瘡瀆於死 而候慰填街 憂助七歲 謂其母曰……公使喚來 至坐床下 無一語 須臾瘡潰 公謂偶爾 不甚異之 既壯 爲公養鷹 甚愜公意 初公之弟 有得官赴外者 請公之選 鷹歸治所 一夕公忽憶其鷹 明晨擬遣助取之 助已先知之 俄頃取鷹 味爽獻之 公大驚悟 方知昔日救瘡之事 皆 匹測也 謂曰 僕不知至聖之托吾家 狂言非澆汚辱之 厥罪何尋 而後乃今願爲導師導我也 遂下拜 靈異既著 遂 出家爲僧 易名惠空 常任一小寺 每猖狂大醉 負篋歌舞於街巷 號負篋和尚……³⁷⁾

먼저 [A]의 惠宿에 關한 道術行脚을 整理해 보자.

(가) 瞿崑公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것을 고쳐 주려고, 사냥한 고기를 나누어 먹고는 自己의 허벅다리 살을 잘라 주어 公을 놀라게 하고 杼우치게 유도했다(위 引用文에서의 省略部分).

(나) 王이 使臣을 시켜 불렀는데, 使臣이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와 同寢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각에 信徒의 집에서 齋를 올리고 있었음.

(다) 惠宿이 갑자기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각에 다른 곳에서 그를 만나고 온 사람이 있어서 묻은 곳을 다시 파 보니 醜신 한 짝 뿐이고 棺이 비었음.

다음은 [B]의 惠空 이야기를 整理해 보기로 한다.

(가) 天真公의 집에 일하는 할머니의 아들로서 아무도 그가 道人임을 모르게 숨어 凡人처럼 살았다.

(나) 主人 天真公이 중기가 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惠空이 가만히 寢床 앞에서 기도하여 甦게 함.

(다) 天真公의 사냥하는 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매를 主人의 아우가 다른 곳으로 빌려 간 지 여러 날이 되었다. 天真公이 그 매가 생각이 나서 내일은 사람을 보내어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알고서 아침에 그 매를 가져다 바침.

(라) 天真公이 비로소 神人임을 알고 엎드려 사죄하니까,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하면서 出家하여 僧이 됨.

(마) 항상 大醉하여 삼태기를 지고 다니며 狂舞함.

(바) 우물에 들어가 數月 후에 나오는데 옷이 젖지 않음(以下 위 引用部分에서 省略되었음).

(사) 山路에서 갑자기 죽어 썩어서 벌레가 날고 있었는데, 뒤에 如前히 市中에서 狂舞하고

37) 「三國遺事」卷 4 二惠同塵.

있음.

(아) 善德王이 靈廟寺에 行幸했을 때, 志鬼 心火가 불을 질렀는데 惠空이 새끼줄을 쳐 놓은 金堂은 불이 접근하지 않았음.

以上과 같은 素材들은 모두 中國 說話集에서는 神仙의 行脚으로 가장 널리 散見되는 것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 二惠의 說話는 分명한 神仙說話인데 佛僧으로 結付되어 있어서 佛·道の 相合된 關係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밖에 「三國遺事」에 실린 神呪關係 三師인 惠通·密本·明朗에 대한 事迹도³⁸⁾ 神仙思想과 密接히 相關되어 있는데, 비록 神印宗이란 佛教의 宗派로 發展이 되었다고 叙述하고는 있지만³⁹⁾ 佛教에서 엄격히 따지자면 異端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性格을 띠게 된 裏面에는 위와 같은 神仙思想이 깊숙이 스며들어 韓國的인 禳災佛敎로 변모되었으며, 그것이 護國이라는 國策的인 庇護를 받게 된 要因이 되기도 하였고, 民間의 迷信的인 신앙으로 認識되어지기도 했다고 본다.

V. 本格的인 神仙說話

「三國遺事」에 실린 本格的인 神仙說話는 몇 편 되지 않는다. 앞에서 본 仙桃山 聖母說話 外에, 景德王과 關聯된 表訓大德 이야기가 있을 뿐이고, 佛僧으로 設定되지 않은 사람의 道衛行脚을 나타낸 金庾信交友居士 이야기가 있는 정도이다. 表訓大德은 비록 ‘大德’이란 名稱을 붙였지만 現在까지 남아 있는 記錄으로 보아 佛僧이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잠깐 이 說話의 背景이 된 新羅 제 35대 景德王 때의 中國 事情을 살펴 보면, 이 때는 道教가 佛教보다 우세하던 唐 玄宗 天寶年間이 된다. 그러니까, 統三以後로 상당히 唐과 交涉하였던 新羅社會에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 「三國史記」의 記錄을 보아도, 이 무렵 唐으로부터 老子 道德經을 들여 왔다는 內容이 있고,⁴⁰⁾ 「三國遺事」의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는,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이라고, 山神들이 景德王의 御前に 現侍하였다고까지 表現하여, 그 神仙의 崇尚 程度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제, 神仙으로 登場된 表訓大德의 說話를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王一日詔表訓大德曰 朕無祜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訓上告於天帝 還來奏云 帝有言 求女即可 男即不宜 王曰 願轉女成男 訓再上天請之 帝曰 可則可矣 然爲男則國殆矣 訓欲下時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訓來以天語諭之 王曰 國雖殆 得男而爲嗣足矣 於是 滿月王后生太

38) 「三國遺事」卷 5 神呪 第 6.

39) 「三國遺事」卷 5 明朗神印 項에서, “……因茲爲神印宗祖 及我太祖創業之時 亦有海賊來擾 乃請安惠朗融之裔廣學大緣等二大德 作法禳災 皆胡之傳系也” 라고 禳災佛敎를 暗示하고 있음.

40) 「三國史記」卷 9 孝成王 條에 “(2年 4月) 唐使臣耶瑋以老子道德經等六書 獻于王” 이라고 記錄되어 있음.

子 王喜甚……訓師之說驗矣 41)

表訓大德은 王命을 받고 하늘의 天帝계 올라가서 太子를 얻게 해 달라고 要請했고, 天帝는 그 때 女子만을 낳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表訓은 地上으로 내려 왔다가 王의 재차 부탁을 받고 上天하여 다시 요청하기를, 轉女成男을 해 달라고 했다. 여기서 天帝는 男子를 얻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했고, 表訓이 天上에서 내려 올 때에 天帝는 天上과 人間界가 엄연히 다른데, 이웃 往來하듯 하여 天機를 漏洩시키니 앞으로는 다시 올라 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는 內容이다. 이와 같은 表訓의 行爲는 바로 神仙說話에서 登場되는 方士들의 行動 그것이다. 이렇게 조금도 疑心없이 表訓이 天上을 오르내리며 天帝를 만날 수 있다고 表現한 것을 보면, 當時에 神仙思想이 얼마나 뿌리깊이 民衆의 意識 속에 파고 들었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三國遺事」의 執筆자가 佛僧이 아니고 一般 好事家였더라면 훨씬 더 많은 此種 神仙說話를 收錄하였으리라 믿는다. 이 表訓의 이야기야말로 너무도 완벽한 神仙說話인 것이다.

다음은 道術說話인 金庾信交友居士 이야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神呪三師의 하나인 密本法師에 관한 神通術을 叙述한 다음에 兼하여 실어 놓았다.

又金庾信嘗與一老居士交厚 世人不知其何人 于時公之戚秀天 久染惡疾 公遣居士診術 適有秀天之舊名因惠師者 自中岳來訪之 見居士 而慢侮之曰 相汝形儀 邪佞人也 何得理人之疾 居士曰 我受金公命 不獲已爾 惠曰 汝見我神通 乃奉爐呪香 俄頃五色雲施 窺頂上 天花散落 士曰 和尚通力不可思議 弟子亦有拙技 請試之 願師乍立於前 惠從之 士彈指一聲 惠倒送於空 高一丈許 良久徐徐倒下 頭卓地 屹然如植椶 旁人推挽之不動 士出去 惠猶倒卓達曉 明日秀天使扣於金公 公遣居士往救 乃解 因惠不復賣技⁴²⁾

이 說話는 道術을 서로 겨룬 것으로, 中國의 神仙說話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金庾信의 交友인 한 居士가 자신의 道技를 자랑하는 因惠師에게 더 높은 術으로써 겨꾸로 세워 하루밤을 그대로 지내게 했다는 內容으로, 後代 道術素材의 小說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說話의 主人公을 金庾信 交厚의 居士로 나타냈다는 것은 金庾信에 대한 神仙要素 賦與와도 어느 정도 有關하리라 본다. 「三國遺事」에 실린 ‘金庾信’ 說話에 나타난 것을 보아도⁴³⁾, 그의 出生에 얽힌 高句麗 卜筮士 楸南의 化身이라는 說, 高句麗 諜者 白石을 알아 내게 한 山神의 現身 등, 神仙思想과 많이 相關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그 밖에, 「三國遺事」所載說話의 到處에서 神仙的인 要素가 散見되고 있으나, 뚜렷한 言及을 하지 않았거나 佛教와 結付시켜 버렸기에 不分明한 것이 많다. 가령, 竹旨郎의 誕生說話에 얽힌 竹旨嶺의 平路 居士, 白月山에서 得道한 努勞夫得과 担担朴朴의 行迹, 唐使를 따라온 河西國人 두 사람이 東池·靑池·芬皇寺井의 세 龍을 小魚로 변화시켜 잡아 가다가 龍妻의 現身訴請을 받

41) 「三國遺事」卷 2 表訓大德.

42) 「三國遺事」卷 5 密本摧邪.

43) 「三國遺事」卷 1 金庾信.

고 救한 元聖大王 說話 등등, 모두 神仙思想의 範疇에 속하는 것들이다.

Ⅵ. 結 語

以上으로서, 「三國遺事」所載의 神仙關係 說話를 모두 抽出하여 考察해 보았다. 三國時代나 統一新羅時代에는 中國에서 神仙思想이 대단히 旺盛하였던 時期였었다. 그리고, 佛敎가 우리 나라에 傳來되어 자리잡히던 때였기에 佛敎와의 關係가 密接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考究해 본, 以上の 論述들을 다음에 몇 가지로 要約하여 結論코자 한다.

첫째로, 仙桃山의 聖母說話는 우리 나라 神仙思想의 母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佛敎와의 融合關係를 提唱하고 있어서 特히 注目거리라 하겠다. 中國帝室의 女가 得仙하여 渡來한, 完全한 女仙으로 登場된 聖母가 佛殿의 重修를 위해 經費를 마련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 代價로 佛寺에 神仙의 여러 神을 모시게 하여 섬기도록 하였다는 事實은, 우리 나라의 宗教에 대한 座標를 設定해 주었다는 커다란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 新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 따로 道敎의 神을 모신 道觀과 그의 主掌者인 道士가 있지 않았으며, 佛寺가 道觀의 一部를 兼하였고 佛僧이 道士의 行脚을 겸한 것으로 意識되어 온 契機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둘째로, 仙桃山 聖母說話가 佛·道의 融合을 宣言한 이래로 우리 神仙說話는 따로 發展할 그릇을 잃고 말았다. 「三國遺事」의 많은 說話가 分명한 神仙說話인데도, 그 主人公을 佛僧으로 登場시키고 있어서, 韓國의 佛敎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이 면에 특별한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는 點을 力說하고 싶다. 韓國의 佛敎가 宗教로서의 佛敎가 아니라, 護國·禳災의 性格을 띠게 된 데에는 이 神仙思想과의 結合에 큰 關係가 있다고 믿는다.

셋째로, 비록 後來的이긴 하나, 聖母를 國祖로 設定하여 新羅의 二聖을 낳은 母體로 表現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것이 說話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 의식 속의 神仙觀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聖母說話가 中國에서는 우리 民族을 卑下시키는 方向으로 叙述하고 있다는 것은, 兩民族 사이의 感情的인 面을 잘 말해 주는 點이라 하겠다.

네째, 新羅가 佛·道의 圓만한 融和를 이루고 있는 반면, 高句麗의 神仙說話에서는 대단한 相克이 나타나 있어 對照의이다. 新羅에서는 佛·道가 相合하여 護國의 宗教로 되었는데, 高句麗의 佛敎는 道敎를 흡수하지 못하고 강한 拒否反應을 나타내어서, 道敎를 亡國의 根源으로 몰아붙였다는 事實은 매우 重要한 問題라 생각한다.

다섯째, 「三國遺事」에는 完全한 神仙說話도 몇 편 登載되어 있다. 景德王의 命을 받고 天上을 往來하여 天帝와 相對한 것으로 表現한 表訓說話는 神仙思想의 本質인 面을 나타낸 것이며, 道術을 겨룬 金庾信交友居士說話는 後代 道術說話에 크게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中國 神仙說話의 道術 素材, 이틀비면 죽어서 벌레를 날렸는데 다시 市中에서 狂舞한다는 가,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일, 묻었는데 파보니 屍體는 없고 질신 한 짝만 있다는 것, 龍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고 天使가 小魚로 변화시켜 잡아 가는 것을 救해 준다든가 하는 것 등등은 神仙說話의 基本的인 素材인데, 역시 이러한 要素가 우리 說話에 많이 利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끝으로, 國仙道에 있어서는 神仙思想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花郎制度를 構想한 眞興王은 性品이 神仙을 憧憬하였고, 그래서 그 修練過程을 現實化해 보고자 한 것이 곧 國仙花郎이었다. 「三國遺事」의 說話에 이와 같은 眞興王의 意圖性을 뚜렷이 밝혔다는 事實은 그가 佛僧의 立場에서 본 分明한 觀點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眞興王이 神仙의 修練法을 가지고 젊은이를 훈련하여 나라를 富強하게 하겠다고 意圖한 決心이 마침내 三國統一을 가져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古代說話에 나타난 神仙思想을 考察해 볼 때, 우리 민족은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以上으로, 여기에 깊이 젖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李能和 : 「朝鮮道教史」(서울, 普成文化社, 1977, 金鍾殷 譯本)
 朴晟義 : 「國文學背景論」(서울, 宣明文化社, 1967)
 黃溟江 : 「新羅佛敎說話研究」(서울, 一志社, 1975)
 傅勤家 : 「中國道教史」(臺灣, 商務印書館, 1962)
 吳 康 : 「老莊哲學」(臺灣, 商務印書館, 1967)
 胡哲敷 : 「老莊哲學」(臺灣, 中華書局, 1973)
 周紹賢 : 「道家與神仙」(臺灣, 中華書局, 1970)
 小柳司氣太 : 「老莊思想と道教」(東京, 森北書店, 1942)
 金鉉龍 :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서울, 一志社, 1976)
 金鉉龍 : 「신선과 국문학」(서울, 平民社, 1978)
 「三國遺事」, 「三國遺事 譯註本」(서울, 東國文化社, 1956)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막역전」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舊唐書」, 「唐書」, 「隋書」, 「梁書」, 「北史」

SUMMARY

A Study on the Tales of Korean Ancient Taoist (神仙)

Kim Hyeun-Lyong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Taoistic tales that mentioned on the Samgook-yoosa (三國遺事).

1. A story of Seundo-seungmo (仙桃聖母) is a nucleus of the tales on Korean Taoism. It presented the combination of Buddhism and Taoism.

Seundo-seungmo (仙桃聖母) is a female deity of Korean Taoism. But she offered a fund for repair of the Buddhistic temple. On the other hand, she made a request that deify the Taoistic god in the Buddhistic temple. This request had the very important meaning. It was the direction for a way of the Korean religion.

2. The tales of Korean Taoism are the compound aspects of Buddhistic element. All the Buddhistic priests in the tales holded Taoistic ability. So the pure Taoistic tales had little.

3. It expressed that Seundo-seungmo (仙桃聖母) was delivered of tow sage (Pakhyeukkeuse <朴赫居世> & Alyong <閔英>) in Silla(新羅). This actual fact is meaning of deep-rooted feeling for Taoism on the Korean people.

4. It mad an appearance that Buddhism refused the Taoistic element in the tales of Kogorea(高句麗). It mad plain that Taoism ruined there country in this tales. Then, this compeare on the circumstance of Silla (新羅). It is the very important question.

5. There is the perfect Taoistic tale in the Samgookyooosa (三國遺事), too. It is the Pyohoon's (表訓) story. He fly to Heaven and meet God. Upon this, he freely comes and goes from Heaven to the earth.

6. The Hoarangdo (花郎道) of Silla (新羅) founded on the Taoistic thought. We know that used a method of the Taoistic training in the Hoarangdo (花郎道).